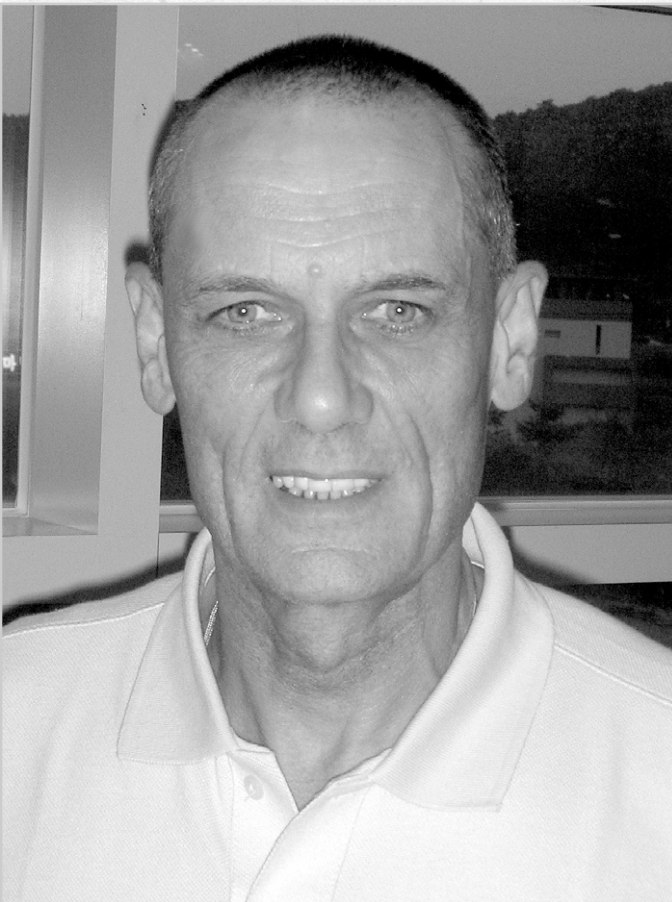


●●● Mr. Paul Gittins 로스 아시아 담당 부사장

육계산업 성장 가능성 크다

본고는 지난 3일 충남 예산에서 개최된 로스 사양관리 세미나에서 강사로 초대된 Mr. Paul Gittins 로스 아시아 담당 부사장을 만나 향후 닭고기의 미래산업 전망 및 종계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았다.

Paul Gittins 로스 부사장은 스코틀랜드 Glasgow 대학에서 가금학을 전공하였고, 1973년부터



▲ Paul Gittins 로스 아시아 담당 부사장

Fitch Lovell Group에서 닭고기 영업을 담당한 바 있으며, 1980년 영국의 대형 계열업체인 Buxted Poultry사에서 7년동안 근무하면서 닭고기 영업 뿐만아니라 종계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 바 있다.

로스회사에는 1987년 입사를 해서 신규사업부장으로 10여년간 활약한 바 있으며, 1997년에는 터키 로스 사장을 역임하면서 특유의 마케팅 전략으로 로스 시장 점유율을 90% 향상 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2002년부터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로스 영업담당 및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로스의 아시아 점유율을 늘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 한국에는 로스 아시아 담당을 맡고난 이후 4년 전부터 10여차례 다녀 갔으며, 삼화 육종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을 60%까지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닭고기 산업의 미래는?

세계 닭고기 생산은 연간 약 6천만톤을 생산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2005년에는 생산량이 줄어들었지만 금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닭고기 산업은 놀랄만한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1인당 가금육 소비를 보면 홍콩의 경우 1인당 57.3kg을 소비하고 있지만 1kg도 소비하지 못하는 지역도 많고, 아시아와 남미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가 대표적인 나라인데 앞으로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을 것이며 아직 소비량이 세계 평균치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가금육 평균 소비량은 10~11kg(지육기준)인데 한국이 거의 같은 양의 가금육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홍보 등을 통해 닭고기 소비를 늘리는데 노력하면 성장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닭고기 수출입 변화는?

세계 닭고기 무역량은 IMF발생 이전인 2002년 960만톤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13%를 차지하였습니다. 닭고기 수출은 그동안 미국과 태국이 주도를 해왔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브라질의 수출이 큰폭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유럽지역에 가슴살을, 아시아 지역에는 다리를 수출하는 전략을 세우면서 세계공략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던 태국의 닭고기 산업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아직도 완전 차단을 하지 못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의 육계 kg당 생산비를 살펴보면 브라질이 400원 정도로 가장 낮고 다음이 미국(520원), 태국

(620원), 중국(63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지역은 거의 1,000원대에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무역장벽이 허물어지는 이때에 한상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로스의 시장점유율 및 영업활동은?

로스품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4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유럽지역이 70%로 가장 많고 아시아 지역이 가장 낮은 3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중 일본이 80%로 가장 많고, 다음이 베트남(63%), 한국(60%), 태국과 뉴질랜드(45%)가 비교적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전략은 항상 고품질의 능력을 가진 병아리를 공급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할 것이며, 또 하나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도의 생산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비록 시장 점유율은 낮더라도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므로 이 지역에 큰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세계 중계 시장 흐름과 아비아젠의 사업방향은?

한 품종을 선발하여 육종시키는데 최소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원종계 사업은 위험성이 큰 사업입니다. 순종 10마리를 선발할 경우 5년 후에는 우리 소비자들이 5만5천톤의 닭고기를 식탁에서 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스 품종은 10년 전에 비해 육계 사육일령이 12%가 줄어들었고, 사료량도 17%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육계의 품종선택 폭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바에이커와 로스가 예전에는 다른 회사였지만 이제는 같은 회사로 통합이 되면서 육종사들이 품종을 정예화 시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서로 기후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 무난히 성적을 낼 수 있는 품종을 만드는데 아비아젠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